

<p>1단계) 내용 중요 시어 (긍정: ○, 부정:△) 및 내용 정리</p>	<p>6강. 복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교리(화자. 김진형) 이번 유배(화자가 유배당한 처지임을 알 수 있음.) 죄 없이 오는 줄은 복관 수령 아는 바요(화자의 억울함에 공감함.)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본관의 말. 화자를 위로하고, 함께 풍류를 즐기기를 권유함. ■ [그러나 이내 몸(화자)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무엇이냐]: 화자의 말. 유배 온 사람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여 본관의 권유를 물리침. ▶ 풍류를 즐기자는 본관의 권유를 물리침. ■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 명: 선비들이 화자에게 배움을 청하며 모여드는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냄. ■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편히 날 보내다]: 풍류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유배 생활. ▶ 선비들을 가르치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유배 생활의 모습 ■ 개가죽 상하의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주민들이 입은 옷과 먹는 양식 ■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한 달 반을 보존했네]: 본관과 주인의 배려 덕분에 살아가는 힘든 처지임을 드러냄 ▶ 유배지의 주민들의 모습과 화자의 힘든 처지 ■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매향(천보산을 함께 유람한 기생)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 곡조 부르고 군산월(글쓴이가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인물) 앉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군산월의 앉은 모습을 '꽃'에 비유, 군산월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함)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감탄형 어미를 통해 반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유배당한 처지에서도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남. ■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차라리 안 본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 군산월의 아름다움을 강조함.) ■ 이천 리 변경(이천 리 밖 변방에서. 화자가 유배 온 곳.)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다 네(군산월) 덕이로다 ■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절에서 먹는 음식과 차) 보소 정갈하고(시각적 이미지) 향기롭다(후각적 이미지)] []: 절집에서 마주한 음식에 대한 만족감) ▶ 매향, 군산월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함. ■ 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 유배 온 신분으로 기생과 함께 산수 유람을 다닌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화자의 불안함. ■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고 수노에게 명령함. ▶ 다시는 기생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심한 후 선비들과 풍류를 즐김. <p><주제>유배지에서의 풍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p>
<p>2단계)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 유배가사, 기행 가사 ■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 남겨: 비유법(자신을 신선에 비유) ■ 연화봉 절바위는 ~ 눈앞에 솟아 있고: '~는(은) ~고'의 반복을 통한 대구적 표현. ■ 청산은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대구법 ■ 작가의 체험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남. ■ 다양한 표현법과 예술적인 형상화가 나타남. ■ 칠보산 관람의 견문과 감상을 제시함.

<p>1단계) 내용 중요 시어 (공정: ○, 부정: △) 및 내용 정리</p>	<p style="text-align: center;">7강. 용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婦人)(풍자의 대상. '의 모양 보소~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도 허다(許多)하다 ▶서사: '저 부인'에 대한 소개 ■ [계엄스런* 시어머니~요악(妖惡)한(요사하고 간사하며 악독한.) 아우 동서 여우(교활한 사람을 비유) 같은 씨앗년*의 거세도다 남노여복) ('남노여복'을 거느리는 것으로 보아 '저 부인'이 양반 여성임을 알 수 있음.)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시집 식구들을 포함하는 '저 부인')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어라]([]: 화자가 '저 부인'의 편지 내용을 전하는 부분 ■ [긴 장죽(長竹)(긴 담뱃대)이 벗님이요(대상을 의인화함.)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요]: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담배와 점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저 부인'. ■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요: 몸치장에만 신경 쓰는 '저 부인' ■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그려* 맞닥수*라: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저 부인' ■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色酒家)*나 하여 볼까: 양반임에도 술집을 하려고 하는 '저 부인'. 과장을 통한 풍자 효과의 극대화 ▶본사 1: '저 부인'의 행실 열거 ■ 남대문 밖 뺨덕어멈: 두 번째 풍자 대상, 「심청전」에서 심 봉사를 골탕 먹인 행실이 나쁜 여자 ■ 나가면은 말전주*요 들면서 음식 공론: 남의 말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뺨덕어멈' ■ [제 조상(祖上)은 젓혀 놓고~푸닥거리(굿) 의복가지 다 나가고]: 불공이나 무당굿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뺨덕어멈'. 불교와 미신을 경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반영. ■ [남편 모양 볼작시면 삽살개 뒷다리라(양상하고 볼품이 없는 모양) 자식 거동 볼작시면 털 벗은 술개미라(털 빠진 새처럼 험벗음)]: '뺨덕어멈'이 자신의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음이 나타남) 해학적 표현, 과장적 비유. ■ [이야기책 소일에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이간질과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뺨덕어멈') ■ [세간(살림살이)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 가네]([]: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뺨덕어멈'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냄) ■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홀아비요 딸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탄일네]: '뺨덕어멈'이 야기한 부정적 결과 ■ 간부(姦夫)(간통한 남자) 달고 달아나다 관비(官婢) 정숙* 흐뭇하다: '뺨덕어멈'이 관의 노비가 된 상황에 대한 통쾌함. ▶본사 2: '뺨덕어멈'의 행실 열거 ■ [무식한 창생(蒼生)(세상의 모든 사람)들아~옳은 줄로 알랑이면 행하기를 위주(爲主)하소]: 직접적인 화자의 의도 제시 - '저 부인'과 '뺨덕어멈'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멀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것을 경계함. 바른 도리를 깨우치려 함(교훈적, 경세적). ▶본사 2: 옳은 일에 힘쓰고 그른 일을 멀리하라는 당부 <주제>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p>2단계)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계녀가사, 세태가사, ■ 성격: 풍자적, 해학적, 교훈적, 경세적, ■ 남편 모양 볼작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자식 거동 볼작시면 털 벗은 술개미라: 해학적 표현, 과장적 비유. ■ '용부'의 행동에 대한 탁월한 묘사로 뛰어난 골계미를 드러냄. ■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통해 교훈을 전달함. ■ 열거법, 과장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p>1단계) 내용 중요 시어 (긍정: ○, 부정:△) 및 내용 정리</p>	<p>8강. 동유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갈밭(지역의 밭 특성)이 단단하여 쌍꺼리*로 밭을 갈고: 지역의 밭 특성과 관련지어 농사짓는 모습을 묘사함. ■ [산수는 첩첩하고 인가는 드문데~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화자의 주관적 느낌이 드러난 부분. 두메산골 집의 꾸밈 - 투박하고 힘들어 보임.)]([]): 화자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 객관적인 태도로 관찰하고 있음. ▶ 여정 중 살펴본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 ■ [초사일 저녁때(매달 초하루부터 해아려 넷째 되는 날 저녁)에 먹구름이 끼기에(날씨 상황)]: 일기의 형식을 차용한 기행 가사. ■ [일제히 출발하여 장오고개~또 한 고개 높구나] 장오고개의 높고 가파름. 여정의 힘듦 ■ [그 가운데 큰 내 있고~이쪽은 김성이요 저편은 회양이네]: 화자가 이동 중에 본 하류의 모습 ■ [하류 앞은 곳에~ 행인을 건네준다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 ▶ 초사일 저녁 날씨 상황과 일행의 이동 경로 ■ <[큰 폭포 맞은편의 바위에~ 삼천 척(과장) 떨어지는 물 건너다 바라보니]: 금강산 폭포를 맞은 편의 바위에 앉아 감상함 ■ 석벽 백여 길(과장)이 병풍(원관념: 석벽)처럼 둘러 있고 ■ 은하수 한 굽이(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은하수 한 굽이에 빗땀.)가 공중에 드리워져 ■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 눈이 날리니: 비유법. 시각적 이미지.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함. ■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화자의 주관적인 느낌.)>< >: 인상적인 경물을 느린 호흡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함. 경물과 객관적인 ■ 거리를 유지하면서 묘사와 설명에 치중함. ▶ 아름다운 금강산 폭포의 모습을 묘사함. ■ [한참을 구경하고~ 우물집* 지었기에]([]): 빠른 호흡으로 여정을 제시함. 금강문→절→극락고개→주막집 ■ 문 열고 구경하니: 화자의 호기심과 적극적인 탐색. ■ 상하탕(上下湯)이 놓였는데~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우물집의 구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 금강문에서 주막까지의 여정과 우물집의 모습 ■ [만물초 가는 길이~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인용.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 기상 상황을 근거로 만물초에 가는 것을 만류함.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줌. ■ 봉래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아쉬움. ■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때: 여행 계획을 만물초에서 총석으로 변경함 ■ 만이천 봉우리(금강산의 만이천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 ▶ 기상 상황 때문에 만물초에서 총석으로 여행 계획을 변경함. <주제> 금강산 유람 경험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동
	<p>2단계)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 형식을 차용하여 금강산 유람 경험을 서술함. ■ 여행 중의 행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 지방 풍속, 생활, 경물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함. ■ 여행 감상보다 여행 경험에 더 비중을 두어 서술함.

	9강. (가) 나물 캐는 노래	(나) 사랑을 찬찬 엮동여~	(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p>1단계) 내용 중요 시어 (긍정: ○, 부정: △) 및 내용 정리</p>	<p>■ 삼천척 떨어지는 물 : ~ 금강산 유람 가자 ▶ 서사: 강원도 금강산으로 유람을 권유. ■ 큰 산: 서 처녀와 남 도령이 서로의 점심밥을 나누어 먹는 장소. 유흥의 공간. 나물 캐기를 목적으로 도착한 곳 ■ 올라가면서 올고 사리 내려오면서 늦개사리 : 언어유희가 나타남. ▶ 본사 1: 이른 아침에 출발해 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나물 캐기의 과정 ■ [서 처녀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 놓고: 서 처녀의 점심밥. (서 처녀의 점심밥을 '여우'에 비유.) ■ 남 도령 밥을 끌러나 보니 수박씨 같은 콩보리밥에 된장 한 술을 붙여 놓고: 남 도령의 점심밥. (남 도령의 점심밥을 '수박씨'에 비유)[: 대구법. 서 처녀의 밥과 남 도령의 밥을 대조하여 나타냄.) ▶ 본사 2: 젊은 남녀들이 서로 점심밥을 나누어 먹는 모습 ■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 젊은 남녀 사이에서 혼인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남 ▶ 결사: 젊은 남녀들의 다정한 모습과 유흥 <주제> 젊은 남녀들의 나물 캐기와 그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인정과 연정</p>	<p>■ 사랑(추상적 대상)을 찬찬 엮동여 뒤섞어 지고 ▶ 초장: 동여매 지고 가는 짐과 같은, 임을 향한 사랑 ■ 태산준령: 임을 사랑하는 일이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과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는 일처럼 힘든 것임을 은유적으로 드러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부각함. ■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마는: 주변 사람들이 버리고 가라고 할 정도로 임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음을 나타냄. ▶ 중장: 남들이 만류할 만큼 임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 ■ 가다가 자질러* 죽을망정: '사랑'이라는 짐의 무게에 눌러 죽더라도 ■ 나는 아니 버리리라: 임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 종장: 임을 향한 사랑을 단념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주제> 임을 사랑하는 임의 힘겨움과 임과 사랑을 지속하려는 의지</p>	<p>■ 모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매개체 ▶ 초장: 모시실을 삼는 모습 ■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뻑며 감빨아: 끊어진 모시의 울을 잇는 동작 묘사, '호치단순'에서는 시각적, '흠뻑며 감빨아'에는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남.) 섬섬옥수(纖纖玉手)(가날프고 고운 여자의 손)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부쳐* 이으리라 저 모시를]: 모시 삼기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도치법. ▶ 중장: 모시실을 삼다가 그 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음. ■ 우리 임 사랑: 화자의 소망. 추상적 대상) 그쳐 갈 제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끊어지면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모시에 '사랑'을 빗대어 표현, 사랑이 끊어져도 다시 이어가겠다는 바람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음. ▶ 종장: 임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진 모시실을 이어 붙이듯이 그 사랑을 다시 잇겠다는 의지 <주제> 임과의 사랑을 오래 이어 가려는 소망과 의지</p>
<p>2단계)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p>	<p>■ 유사한 구절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 ■ 대조를 활용해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 ■ 말소리의 유사성에 착안함</p>	<p>■ 허위허위: 음성상징어(의태어)) ■ 사랑을 엮어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굳건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험난한 고개를 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의 어려움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나타냄.</p>	<p>■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모시삼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 도치법을 사용해 문장에 변화를 주어 참신하게 표현.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p>
	<p>공통점 ① (나)와 (다)는 갈래상 정해진 글자 수와 음보를 맞춰야 한다는 제약에서 자유롭다(조선후기 사설시조의 특징 반영) 차이점 ① (가)는 남녀 간의 풋풋한 사랑을, (나)는 사랑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젊은 남녀들의 다정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p>		

	10강. (가) 조한가	(나) 장진주사
<p>1단계) 내용 중요 시어 (긍정: ○, 부정: △) 및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고영웅 호걸들아: 청자를 호명함. 청자(잡가를 듣거나 읽는 독자들. 화자는 청자를 '만고영웅', '호걸'에 빗대어 추켜올리고 있음 ■ 초한승부(楚漢勝負): '초패왕'의 패배와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초한승부'의 결과를 제시함. ■ 절인지용(絶人之勇) 부질없고 순민심(順民心)이 으뜸이라: 화자의 생각, 절인지용보다 순민심이 중요함. ■ 천하병마도원수(天下兵馬都元帥)는 표모걸식(漂母乞食)*(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는 고사) 한신(한나라 진영의 신하)이라 ■ 이좌거: 한나라의 장수, 장자방: 한나라의 장수 ■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解散)할 제*: '장자방'은 '옥통소를 슬피 불어' 초패왕의 군사들인 '팔천제자'를 해산시키고 있음. ■ 외기러기 슬피 울어: 애상적인 분위기를 고조함. ■ [변방만리 사지중(死地中)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청자.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넨.]~너(저 군사)의 패왕(초패왕) 역진(力盡)하여 장중(帳中)에 죽을 테라: 초패왕은 패망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싸우려 하고 있음.]]([: 청자 역시 '변방만리'에서 '패왕'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일깨움. ■ [내(화자-초패왕 혹은 그의 부하 장수) 평생 원하기를 금고(金鼓)를 울리면서 강동(江東)으로 가겠더니: (전쟁에 이겨 '금고를 울리며' 돌아가는 상황)~불행히 패망하니~ 백성 어이 보리]]([: 전쟁에 패망한 상황을 전쟁에 이긴 상황에 대비하여 '초한승부'에서 이기지 못한 괴로움을 드러냄. 불행히 패망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 초진중(楚陳中) 장졸들아(화자가 청자를 호명함. 청자 - 초진중 장졸들) 고향 소식 들어 보소: 화자가 청자에게 고향 소식을 전달하고 있음. 초진중 장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킴. ■ 부모님은의문(倚門)하여 바라보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님 모습 ■ 우에다~망부석이 되겠구나: 남편을 기다리는 '처자들'의 모습 ■ [집이라고 ~애비(초패왕을 따라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군사들 불러 ~씩는구나]]([: 아버지가 전쟁에 동원된 후 가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어미'의 고달픈 상황 ■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데로만 갈거나: 초패왕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남. <p><주제> 초한승부에서 패배의 위기에 놓인 초패왕의 심정과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병사들의 애통한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잔 먹새그려 또 한잔 먹새그려 꽃 꺾어 산 놓고: 꽃을 꺾어 수를 세면서 술을 마시는 낭만적인 모습.) 무진무진 먹새그려]]([: a - a - b - a. '한잔 먹새그려'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있음. ▶ 술을 권하며 술에 취할 것을 권유함. ■ 이 몸(화자) 죽은 후면: 죽음이 언젠가 올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떠올리고 있음. ■ [지게 우해 거적 더퍼 주리혀 매여 가나(초라한 죽음) 유소보장*의 만인이 우레네나(화려한 죽음)] [: 대조, ■ 어육새 속새 덩가나무 백양 숲에 가기곳 가면: 삭막한 무덤 주변의 모습 ■ 누른 해 흰 달 가랑비, 굵은 눈, 소소리바람 불 제 뉘 한잔 먹자 하고: 아무도 나의 무덤을 찾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염려함.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는 아쉬움. ▶ 이 몸이 죽은 후에 이 몸에게 술을 권할 사람이 없을 것임을 안타까워함. ■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상상.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킴. ■ 뉘우친들 엇더리: 술을 즐기는 태도의 합리화. ▶ 살아 있을 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 것을 죽은 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음을 드러냄. <p><주제> 술을 권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잊으려 함.</p>
<p>2단계)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투가 많고 수시가 조로 마무리함. ■ 향유층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나 이에 필적하는 경제적, 지적 기반을 가진 집단이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장에 'a - a - b - a' 형식이 사용되고, 중장은 제한 없이 길어지는 사설시조의 구조를 지님.
	<p>공통점 ①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p> <p>차이점 ① (가)의 화자는 특정 청자를 설정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나)의 화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편적인 정서를 호소한다.</p>	

	11강. (가) 잠령민정	(나) 우국가
<p>1단계) 내용 중요 시어 (긍정: ○, 부정: △) 및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쪽의 바다에는 큰 고래(△) 외적·'일본' 있고 서쪽의 국경에는 멧돼지(△)('여진족') 있네 >< >: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냄. 대구법. ▶ 외부의 적이 도사리는 위태로운 조선의 현실 ■ 강목에는 패잔병만 울고 있으며: 사기가 꺾인 조선의 군사들 ■ 해안에는 군선 보루 전혀 없구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방비를 하지 않음을 대비적 비유를 통해 제시함. ▶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조선의 변방 상황 ■ 조정에선 좋은 계책 아니 세우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정. ■ 몸보신만 꾀한다면 대장부이라: 몸을 사리지 않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겠다는 의미 ▶ 자신의 몸보신만 생각하는 조정에 대한 비판 ■ 말 잘 보는 한풍자*: (화자의 인물됨, 능력을 알아줄 사람.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나타냄.)가 다시 안 나니~절영마*(화자)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조정의 부패. 안목 있는 존재가 없는 나라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남. ▶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 [누가 알리,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우국의 마음이 나타남. ■ 배웃 입은 이 사람이 웅대한 뜻 하루 천리 달리는 줄을: 화자가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뜻을 품고 있음이 나타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대장부로서의 포부가 나타남. ▶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대장부로서의 포부와 현실에 대한 근심 <p><주제>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문관으로서의 삶)을 후리치고 반무(反武)*를 하온 뜻은: 화자가 그동안 익혀오던 학문을 버리고 무(武)를 선택하게 된 상황. ■ 삼척검 둘러메고 진심보국(마음을 다하여 나라에 은혜를 갚음. 나라에 충성을 다함.) 하려더니: 자신이 무인이 된 경우 ■ 한 일도 하음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었지만 평생 이룬 바가 없는 것에 대한 반성, 후회, 안타까움 ▶ 나라의 위태로움에 대한 안타까움 ■ 의관문물(조선의 문화의 산물. 화자의 분노감을 유발하는 대상.)을 이대도록 더럽히고(더럽힌 주체: 왜적 / 왜적에 대한 분개와 분노 ■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비분강개(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의 심정이 나타남. 적을 칠 준비를 하고 있음. ▶ 나라의 문물을 훼손한 왜적을 향한 비분강개의 마음 ■ 도적 오다 뉘 막으리: 외부의 침입을 막기 힘든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도적 - 외부에서 침입한 적) 아니 와서 알리로다 ■ 삼백이십 주*에 누구누구 힘써 할꼬: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 함. ■ 아무리 애고애고 한들 이 인심을 어이하리: 인심에 대한 화자의 걱정 이 드러남. ▶피폐한 인심에 대한 개탄 ■ 베 나아~적자(赤子): 화자가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 ■ 원컨대 이 뜻 알으사 선혜 고루 하소서: 가난을 임금이 구제해야 함.) ▶ 백성들의 고통과 선정에 대한 바람 ■ [공명과 부귀란~진심국사 하시거나]([]: 앞으로 대신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 ■ 이령성저령성 하다가 나중 어이 하실꼬: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비판 ▶조정 대신들에 대한 비판 ■ 이 싸움: 당쟁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상황 ■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군주(임금)가 모범이 될 때 두 편으로 나뉘 싸우는 것이 그칠 것임. ▶ 당쟁에 대한 비판과 임금의 역할 <p><주제>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의 걱정</p>
<p>2단계)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적 표현을 통해 국경의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냄. ■ 도치법과 설의법을 활용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강조함. ■ 국가의 안위에 무관심한 위정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함. ■ 문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함.
	<p>공통점 ① (가)와 (나) 모두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드러나 있다. ② (가), (나) 모두 외부 위협 대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③ (가), (나) 모두 지도층 비판과 각성을 촉구한다. ④ (가), (나)는 우국충정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p> <p>차이점 ① (나)의 화자는 비판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가)의 화자는 직접적으로 표출한다.</p>	